

싱가포르에 “한류”가 존재하는가?

김 상*

- I. 서론
- II. 싱가포르의 한류 행태
- III. 싱가포르에서 한류 현상이 시작된 원인
- IV. 결론

I. 서론

1997년경 대만과 중국에서 시작된 이른바 “한류”(韓流)가 싱가포르에도 상륙했다. 1990년대 후반 대만과 중국 대륙에서 시작된 한류는 한국의 TV드라마를 필두로 하여 영화, 가요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바람을 일으키며 2001년 동남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인 싱가포르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류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 열광하는 현상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용할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간으로 보아서는 한국의 공연팀이 올때 1주일이나 며칠동안 열광하고 식어버리는 일시적이고 일과적인 양상이 아

* 한림대학교 강사

나라 비교적 장기간동안 계속되는 지속성을 가진 현상이다. 그 중심에는 열광적이고 적극적인 소수의 매니아집단이 존재하여, 이들 매니아집단들은 한류 현상을 선도하는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 현상은 문화의 특정 분야에서 시작되어 음식이나 제조상품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어 '한국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회적인 유행을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지에서 '하한'(哈韓), '한풍'(韓風), 또는 '한류우'(韓流)로 지칭되는 "한류"는 1990년 후반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중국, 대만(타이완) 등 중화 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중화 문화권이란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와 문화에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온 지역을 의미한다. 즉 중국 대륙과 대만, 영국의 식민지에서 중국으로 귀환된 경제특구지역인 홍콩, 한조(漢朝) 이래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천년간 그 영향을 받아온 베트남, 그리고 중국인의 후예들이 동남아에 산업노동자(華工)로서 정착하여 건설한 나라 싱가포르 등의 지역이다.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의 최남단인 적도 부근, 즉 북위 1.09~1.29도, 동경 103.36~104.25도에 위치한 도시국가이다.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큰 682.7km²에 326만여 명의 인구(2000년 통계)가 거주한다. 싱가포르의 중국계가 인구의 77%, 말레이계 14%, 인도계 7.6%, 기타가 1.4%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북경 표준어: Mandarin), 인도의 타밀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¹⁾

1) 한국관광공사. 『홍콩/싱가포르 관광시장 분석』, 2001. p. 156. 싱가포르는 '말레이인들에게 둘러싸인 중국인의 섬'으로서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의 독립 당시 말레이어를 국어로 채택하였고, 국가도 말레이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 중에서 국어가 말레이어임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다. 특히 회사나 학교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민족국가로서의 특성 때문에, 또한 국어인 말레이를 사용하는 말레이계가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영어가 사용된다. 중국인의 후예인 화인(華人)이 인구의 77%나 되지만 북경 표준어인 Mandarin이나 조상들의 고향말인 복건말(Hokkien), 광둥말(Cantonese), 조주말(Teochew), 해남말(Hailam) 등은 친구, 고향사람들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싱가포르는 한류가 존재하는 중국, 대만, 베트남과는 달리 단일한 국어나 공용어가 아닌 여러 가지 공용어를 사용하며, 한류가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다. 해협식민지 시절부터 영국의 식민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기로서 건설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는 그만큼 서구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서구의 제도와 문화에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화인이 인구의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어 문화와도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다.

필자는 한류현상이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뚜렷한 다민족국가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또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선진국 싱가포르에 한류라고 일컬을 수 있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그 유입 경로와 행태는 어떠한지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어떤 특성이 서구적인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수용될 수 있으며, 그 행태가 중국, 대만, 베트남 등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또 왜 그러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하여 한류의 파급효과와 전망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II. 싱가포르의 한류 행태

1. TV드라마

TV드라마는 한류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의 한류는 TV드라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쉬리>가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자 2000년 10월경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자를 한국에 파견하여 <쉬리>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관심은 다음해인 2001년으로 이어지면서 한류의 시작이 되었다. 싱가포르에 <한류>가 상륙한 것은 <비천무>, <시월에> 등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면서부터였다. 싱가포르인들은 <비천무>나 <시월에>를 통해 일부 젊은 계층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TV드라마 <불꽃>과 <가을동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중국어 유선TV인 채널 U가 5월 6일 개국되자, <가을동화>, <불꽃>, <이브의 모든 것(愛上女主播)>, <아름다운 날들(美好的日子)>, <토마토>, <미스터 Q> 등 한국의 인기 TV드라마를 방영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불꽃>과 <가을동화>는 상당한 호평을 얻었다. 싱가포르의 언론은 <불꽃>과 <가을동화>가 한류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불꽃>과 <가을동화>의 채널 U 방송이후 싱가포르인들은 한국의 TV드라마의 흡인력과 수준에 놀랐으며, <이브의 모든 것>, <아름다운 날들> 등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다른 TV드라마들도 속속 수입되어 방송되었거나 방송되고 있다. 또한 TV드라마의 성공은 한국영화와 TV드라마의 주제곡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켜서 한류의 확대를 가져왔다.

<불꽃>과 <가을동화>가 방송된 후 싱가포르인들은 한국의 TV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한국의 연기자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불꽃>이 방송된 후 2001년 10월에는 『聯合早報』는 특파원을 서울로 파견하여 <불꽃>의 여주인공을 맡았던 텔런트 이영애를 인터뷰하는 성의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영애의 인터뷰는 싱가포르에서의 <불꽃> 성공 이후 이영애라는 연기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한국에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가진 <JSA(邊界風雲)>의 싱가포르 상영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聯合早報』는 “한국 드라마의 여왕이 조역도 꺼리지 않았다”(韓劇天后不介意當配角)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애가 조연으로 나온 <JSA>가 한국 국내에서는 오우삼 감독이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던 미국영화 <미션 임파서블 II>를 흥행에서 크게 눌렀다고 보도하였다.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가을동화>에 전격 기용되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신인 텔런트 원빈을 한국의 키무라 다쿠야(木村拓哉)²⁾라고 지칭하고 있다. 키무라 다쿠야는 싱가포르에서도 인기 있는 일본 연예

2) 그룹 SMAP의 멤버로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겸 텔런트. 한국의 일부 젊은 연령층에서도 상당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키무다쿠'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인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언론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홍콩의 왕가위 감독이 새 영화 <2046>에 일본의 스타 키무라 다쿠야를 기용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꿔서 '한국의 키무라 다쿠야'인 원빈을 기용한다고 보도하였다. 왕가위 감독이 원빈을 기용하는 것은 현재 아시아시장에서의 조류를 따르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장기적인 시장가치를 고려한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언론은 <가을동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980년대에 일본의 대스타 야마구찌 모모에가 주연한 <붉은 의혹>과 같은 구조의 드라마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흡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가을동화> 방송 이후 남자 주인공 송승헌의 인기가 치솟아 '승헌커피'수건, 티셔츠 등이 인기상품이 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을동화>가 방송되기 전에 이미 VCD와 소설, OST가 등장하였다. 정작 <가을동화>의 1, 2회가 방송되자 VCD가 매진되는 사태를 빚었다. 대만에서는 <가을동화>가 방송되면서 "내세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어"라는 대사의 중국어 버전인 "下輩子我要當一顆樹"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을동화>가 방송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싱가포르 젊은 층의 습관에 따라 이 대사를 영어로 번역한 "I want to be a tree in my next life"가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우스개소리도 등장하였다.

대만에서의 높은 인기로 인하여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가을동화>가 방송되기 전에 이미 주연을 맡은 송승헌과 송혜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싱가포르 언론은 미국의 콜럼비아 영화사가 새 영화 <석양천사>에 송승헌을 기용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홍콩 스타 유덕화의 영화사 천막공사에서도 새로 제작하는 액션시리즈에 송승헌이 스퀘트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유덕화는 송승헌 기용에 적극적이어서 TV 액션시리즈물 외에도 정이전과 송승헌을 기용하여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가을동화>가 방송된 이후에는 싱가포르에서 송혜교의 인기가 치솟았다. 싱가포르 매체들은 송혜교가 2002년 1월 17일 홍콩의 10대 가요

상에 초대받아 홍콩에 갔을 때 홍콩 스타 장국영이 송혜교가 만찬회장에 와있다는 소문을 듣자 곧 송혜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하였다. 또 성룡이 새로 촬영할 영화에 송혜교를 캐스팅하려고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2. 영화

대만이 클론의 노래에서부터, 그리고 중국 대륙이 TV드라마인 <사랑이 뭐길래>에서부터 시작된 것과는 달리, 싱가포르의 한류는 영화에서 시작되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조심스럽게 표출된 것은 2001년 초부터이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중국어 신문 『聯合早報』는 2001년 3월 19일자 신문의 “‘한’류가 싱가포르를 삼면으로 기습하다(‘韓’流三面襲獅城)”에서 싱가포르의 한류 상륙을 보도하고 있다. “‘한’류가 싱가포르를 삼면으로 기습하다”는 제하의 기사는 영화와 TV드라마, 한국 대중음악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싱가포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취급한 것은 한국영화이다. 『聯合早報』는 먼저 <8월의 크리스마스(八月照相館)>, <쉬리(生死諜變)>, <거짓말(謊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豬墮井的那天)>, <춘향전(春香傳)> 등을 작품성이 있는 영화들이라고 소개하였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스토리와 영상이 모두 처연한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으로서, 일본의 히트작 <러브레터(情書)>처럼 아름다운 영화라고 평하였다. <거짓말>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등에 대해서는 성과 폭력, 누드 등이 차갑고 준엄하게 표현되어 화면을 직시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춘향전>은 한국의 저명한 감독 임권택 씨가 연출한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2001년 4월 5일부터 <비천무(飛天舞)>, <하루(生命的第一天)>, <시월애(II Mare)> 등이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소개를 하고 있다. <시월애>는 편지함을 매개로 시공을 넘나드는 사랑을 그린 작품이라는 소개와 함께 영상이 대단히 아름답다고 평가하였다. <비천

무)는 싱가포르인들이 본 적이 없는 한국의 무협영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명과 스캔들이 있었던 '김선희'(김희선)가 출연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이 영화는 북한의 김정일에게도 선물한 영화라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³⁾

당시 『聯合早報』는 한국의 TV드라마에 대해서는 대만에서 〈불꽃〉과 〈가을동화〉가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서도 곧 〈가을동화〉가 방송될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대만가수 린이리엔, 차이이린이 한국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그리고 홍콩가수 썬미 총(鄭秀文) 등이 한국 노래를 번안하여 불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처럼 2001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4월에 〈시월애〉, 〈비천무〉, 〈하루〉 등 3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특히 〈시월애〉와 〈비천무〉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우수하며, 내용도 싱가포르인들에게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반응이 좋았던 〈시월애〉는 채널 U에서 구정 다음날인 2002년 2월 13일 밤 10시 30분에 편성되었다.

TV드라마 〈불꽃〉과 〈가을동화〉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聯合早報』는 2001년 10월 17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영화와 TV드라마가 아시아에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⁴⁾ 『聯合早報』는 이 기사에서 한류가 신속하게 아시아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인들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2001년 10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청두에서 개최된 한국영화 회고전에서 상영된 〈성공시대〉(1988),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 〈미술관 옆 동물원〉(1998), 〈JSA〉(2000) 등의 영화들도 신문지상에 소개되

3) 당시 이 3편의 한국영화가 수입되어 극장에서 상영하게 된 것은 중국어 유선채널(지상파)인 U채널과 쇼 브라더스의 합작이었다. U채널은 합작의 대가로 이 영화들의 TV방영권을 얻었다.

4) 李亦筠, “影視韓流 征服亞洲,” 『聯合早報』(2001. 10. 17).

었다. 한국 국내에서 최고 흥행기록을 갱신했던 〈친구〉는 싱가포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에 그쳤다. 그러나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친구〉에 대해 혹평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싱가포르 국내에서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다른 중화 문화권에서는 흥행에 실패한 싱가포르 영화 〈쓸 돈이 부족해(錢不夠用)〉와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 흥행에서 실패했다는 동정론을 폈다. 즉 〈친구〉는 부산을 배경으로 30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영화로서 한국의 청년 내지 중년층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다. 친구의 만남과 헤어짐이 한반도의 정치, 사회, 경제의 변천과 맞물려 묘사되었다. 그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영화여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오우삼 감독의 선정지상주의적인 작품들이나 최근의 일본 범죄코미디물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입체적이고 절제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⁵⁾

〈쉬리〉는 싱가포르에서 3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2억 4천만 원 상당)의 흥행수입을, 2002년 1월에 상영을 시작한 〈JSA〉는 몇 일만에 7만 5천 싱가포르 달러(한화 6천만 원 상당)의 흥행수입을 기록하였다. 300만 명을 약간 넘는 싱가포르의 인구를 감안할 때 상당한 흥행수입이다.

3. 만화

싱가포르의 만화계는 일본 만화(망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이며, 홍콩 만화, 그리고 자국 만화가들이 그린 싱가포르 만화 등이 주변세력으로 되어 있다. 세계를 제패한 일본 만화는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싱가포르의 만화시장을 장악하여 왔다. 일본 만화는 한국에서도 〈짱구〉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장기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크레용 신짱〉을 비롯하여 탐정물인 〈소년탐정 김전일〉, 야구만화의 고전인 〈Touch〉, 성룡이 영화로 제작하기도 한 〈시티 헌터〉, 괴짜 교사의 활약상을 그린 〈GTO〉⁶⁾, 그리고 〈도라에몽〉 등 한국에서도 인기

5) 黃龍翔, “‘朋友’是韓國的‘錢不夠用’?” 『聯合早報』(2002, 1, 27).

를 모았던 일본만화들이 싱가포르에서도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무협만화 〈풍운〉으로 한국에서까지 인기를 얻은 마영성의 〈풍운〉 등 홍콩 만화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싱가포르 만화가 위 티엔 병(黃屏鳴)의 만화 〈신조협려〉 등도 명작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만화가 중국어로 번역되어 싱가포르에서 출판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만화 출판권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창예(創藝)출판사는 한국만화가 김재환의 〈레인보우(金甲虹戰士)〉, 양경일의 〈소마신화전기(小魔神)〉, 이태행의 〈바이오 솔저가이(極地戰將)〉 등을 출판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중견 만화가로서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만화들은 이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우수작들이다. 특히 양경일은 주로 퇴마사와 귀신을 주제로 한 만화를 많이 그려온 작가로서 〈소마신화전기〉는 그의 데뷔작이다. 〈소마신화전기〉는 싱가포르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한국만화이기도 하다. 양경일의 만화는 화풍이 사실적이고 섬세하며, 인물의 외형이나 성격묘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경일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은 한국만화가로서 〈아일랜드〉라는 작품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퇴마물로서 일본에서 먼저 연재를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후에 연재를 한 특이한 경우가 되기도 하였다. 이태행은 한국에서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전쟁을 다룬 〈헤비메탈 6〉, 시간을 오가며 배반자를 찾는 〈타임시커즈〉, 그리고 〈바이오 솔저가이〉 등을 그린 인기 만화가이다. 양경일과 이태행은 나우누리 등 통신에 개인 팬 클럽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인기가 높은 만화가들이다.

대만과 홍콩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영화, TV드라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만화들이 일본만화의 아성을 뚫고 속속 출판되었다. 싱가포르 만화 출판계도 이와 같은 홍콩과 대만의 만화 출판계의 동향과 싱가포르에서의 한류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6) 한국에서는 '반항하지마'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전망하고 싱가포르 시장에 적합한 한국만화들을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창예출판사는 한류의 흐름을 탈 한국만화로 양경일의 <신암행어사>를 선택하고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국만화에 대한 싱가포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예 대만과 홍콩에서 출판된 한국만화를 수입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최대 규모의 만화체인점인 Comics Connetion은 원수연의 <풀하우스>를 수입하였다. 양경일의 <아일랜드>와 김수용의 <힙합>도 이런 경로로 싱가포르에 상륙하였다.

관계자들은 한국만화는 화풍이 이미 성숙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젊은 연령층의 취향에 부합하여 외국에서도 대중화의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⁷⁾

4. 대중음악

싱가포르는 중국이나 대만과는 달리 한국의 가요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낮은 상태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전파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언어이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서구와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수준이 향상되고 한국인 특유의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과 대만에서 한국의 가요가 젊은 연령층을 열광하게 하는 것은 현란한 율동과 세련된 스테이지 매너, 화려한 육감성, 그리고 음악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강점은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민은 영어를 불편 없이 사용한다. 따라서 서구의 새로운 유행음악이 들어오면 별도의 자막이나 번역이 없어도 가사를 그대로 이해한다. 이들이 서구의 음악을 즐기는 것은 그 리듬이나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까지 함께 즐기는 것이다. 서구의 유명 가수나 그룹이 공연을 오면 공연장에서는 이들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7) “漫畫市場將受韓風襲.” 『聯合早報』(2001, 11, 13).

수 있다. 한국에 서구 가수가 왔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구의 대중음악은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되고, 이들은 거리낌없이 그 곡을 수용해낸다. 홍콩의 노래가 이들에게 히트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인구의 75%가 넘는 화인들은 홍콩이나 대만 가수의 노래를 자신들의 정서에 맞는 멜로디와 리듬뿐 아니라 가사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홍콩이나 대만의 가수의 신곡은 곧 바로 싱가포르로 유입된다. 즉 싱가포르인들은 서구의 앞선 음악을 소화해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중국문화권의 음악을 수용할 수 있다.

중국이나 대만, 홍콩 등지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서구와 현지의 음악수준의 중간 정도에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이 일종의 대체효과나 선진음악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중국, 대만, 홍콩에서는 영어나 한국어나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외국어일 뿐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대체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싱가포르인들이 홍콩의 대중음악에 실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대중음악이 이러한 틈새를 파고 들어와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2년 전 일본 TV드라마에 대한 싱가포르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TV드라마 주제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싱가포르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우타다 히카루의 노래는 요즘도 판매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불꽃>과 <가을동화> 이후 한국 TV드라마의 성공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음악도 <한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싱가포르 변화가에 위치한 래플즈 시티 콤플렉스의 음반 매장에는 <이브의 모든 것>, <호텔리어> 등 한국 드라마의 OST 음반들이 일본의 SMAP, 아무로 나미에 등의 팝 뮤직 음반들에 섞여 전시돼 있다. 이 음반매장의 '톱10' 코너에는 한국의 S.E.S와 H.O.T의 음반도 꽂혀 있다.

싱가포르의 FM1003는 2002년 1월 27일부터 1주일간 오후 3~5시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노래, 영화, TV드라마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화 <봄날은 간다>, <친구>의 OST 등 한국의 영화음악, 한국의 대중가요, 한국의 가요를 번안한 중국어 노래 등을 방송하였다.⁸⁾

III. 싱가포르에서 한류 현상이 시작된 원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에서 한류 현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지역에서 한류가 가능한 것은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은 유교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둘째, 한류가 가능한 것은 한국문화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물론 한류 현상이 발생한 이유 중에는 유교문화의 공유와 한국문화의 우수성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써는 한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유교문화의 공유 때문이라면 왜 일본에는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모임'과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극소수의 매니아층만 존재하면서 한류 현상이 없는 것일까? 일본은 한국,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유교적인 가치관을 공통적으로 가진 것으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중문화 수준은 1980년대부터 참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이제 일부 한국의 영화와 TV드라마 등은 세계 무대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그리고 이제 한류가 불기 시작한 싱가포르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왜 한류가 존재하지 않는가? 기존의 이 두 가지류의 주장만으로써는 한류 현상의 발생과 그 확산을 설명하기 어렵다.

싱가포르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류 현상의 행태와 한류의 유입 경로를 분석하면 싱가포르에 한류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유교적 가치관의 공유, ② 한국 대중문화의 질적인 향상, ③ 대중매체의 다양화, ④ 일본류와의 관련성, ⑤ 중화 문화권에서의 확산 효과 등이다.

1. 유교적 가치관의 공유

가부장적인 가족관계, 개인보다는 가족 단위의 중시, 효, 근검절약

8) "싱가포르서 본 한국대중문화." 『문화일보』(2001. 8. 31).

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사회는 과거 전형적인 농경사회였으며, 대가족제도하에서 군신간의 충, 형제간의 우애, 부모자식간의 효 등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었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붕괴되었지만,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과 새로운 서구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는 영국이 19세기에 해협식민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지로 건설한 도시이다. 당시 식민지 개발에 필요한 산업노동력으로서 싱가포르에 온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태평천국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혼란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국내적 요인과 영국 식민지에서의 산업노동력에 대한 수요라는 국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남양(南洋, 동남아)으로 왔다. 당시 이들은 유교적 가치관과 전통에 따라 생활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영국의 식민통치 하에서 서구의 법 제도와 문화를 접촉하게 되고, 독립 후에는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하여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서구적 가치관에 편향되는 것을 우려한 리쿠안유(李光耀) 총리(현 국정자문)가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며 신유교주의를 강조하였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 후반 예절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하였다. 리쿠안유는 1979년 7월 1일 전국 예절운동 전개 개막식에서 가진 연설에서 "예절은 문명사회의 일부분이며, 예절 자체가 미덕"이라고 말하였다. 리쿠안유는 예절은 형식과 성의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형식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른바 예절이란 사람을 대할 때 점잖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절이라는 미덕은 통상 교양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였다. 즉 싱가포르의 성인이든 어린이든 교육과 권유를 통해 교양을 갖추게 하여 예절 바른 국민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쿠안유는 1980년대의 목표를 싱가포르 국민들이 예절바른 사람들이 되고, 예의를 갖추며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는 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예절운동

을 전개한 목적 중 하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예의바르게 대하여 관광객 유치율을 증가시키자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유교적인 미덕을 상실하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싱가포르는 또한 특히 화인들에 대하여 삼강오륜을 강조하고 있다. 리쿠안유는 1981년 설날⁹⁾ 화인들의 설날 헌사에서 화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중국인의 후예로서의 오륜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쿠안유는 “중국인의 후예인 싱가포르인들은 모두 오래된 풍속을 봉행하고 있다. 음력 설날 그믐날 모두들 가장이 사는 곳으로 가서 모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고 말하였다.¹⁰⁾ “학교내에서는 이러한 풍속을 가르치지 않으며, 예의와 관련된 책에서도 규정이 없지만” 싱가포르화인들은 이 풍속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리쿠안유는 이와 같은 풍속은 유가의 오륜에서 나온 것으로 군신, 부자, 부부, 형제자매, 친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을 주시시켰다. 리쿠안유는 양로원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¹⁾

대가족제도에 대하여서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때문에 3대가 한 집안에 거주하는 대가족제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을 애석해 하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근대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대가족제도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리쿠안유는 중국어학교(華校)가 아니라라도 영어로 유가의 가치관을 번역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¹²⁾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이 유가의 가치관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며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HDB 아파트 추첨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웃에 살거나, 한층에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버스에 경노석을 만들어 놓은 것은 모두 이러한 신유교주의의 표현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한국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서구적인 면모를 가지고

9) 중국인의 설날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음력 1월 1일이다.

10) 李光耀, “發財待人以禮美德,” 1994, 新加坡聯合早報 編, 『李光耀40年政論選』, pp. 398-402.

11) 李光耀, “維持三代同堂家庭,” 1994, pp. 403-405.

12) 李光耀, “維持三代同堂家庭,” 1994, pp. 406-410.

있는 반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까지 유교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가적 특성은 싱가포르인들이 특히 한국의 드라마에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싱가포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한국 드라마는 〈가을동화〉와 〈불꽃〉이다. 〈가을동화〉는 남매인 줄 알고 함께 자랐던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내용이고, 〈불꽃〉은 유부녀의 사련을 그린 내용이다. 〈가을동화〉는 서구사회에서라면 은서와 준서의 사랑이 문제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가적인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직도 강한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은서와 준서의 사랑은 유가적인 가족관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인들도 두 남녀의 비극적인 결말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게 된다. 〈불꽃〉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의 며느리가 남편 외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한국 대중문화의 질과 수준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방송된 TV드라마는 〈초대〉, 〈가을동화〉, 〈불꽃〉, 〈이브의 모든 것〉, 〈미스터 Q〉, 〈토마토〉, 〈해바라기〉 등이다. 이 중 〈미스터 Q〉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멜로물적인 특성이 강하다. 〈초대〉는 결혼을 앞둔 세 여자의 각각 다른 이성관과 결혼관을 그린 내용이고, 〈이브의 모든 것〉은 뉴스 앵커라는 위치와 남자를 사이에 둔 자매간의 경쟁관계를 그린 드라마이다. 또 〈해바라기〉는 의사들간의 사랑을 그린 내용이며, 〈토마토〉는 신발회사에 다니는 친구간의 경쟁관계와 사랑을 다루었다. 앞서 서술한 대로 〈가을동화〉는 친남매인 줄 알고 함께 자랐던 두 남녀의 순애보, 〈불꽃〉은 유부녀의 사랑과 갈등을 다룬 내용이다. 이중 특이한 것은 〈미스터 Q〉는 허영만의 만화를 드라마로 제작한 것으로서 직장에서 겪는 일들을 그렸다.

이들 드라마는 한국에서 방송되었을 때 시청률 1, 2위를 기록한 인

기 드라마들이다. 구성이 탄탄하며 연기자들의 외모와 연기도 충분한 시청흡인요소로서 기능한다.¹³⁾ 또한 남녀간의 사랑만이 주된 스토리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직장과 관련된 사건들도 주요한 스토리이다. 따라서 대만이나 홍콩의 액션이 가미된 멜로물에 비해 훨씬 사실적이며, 입체적이다. 한국 드라마의 제작수준은 대만이나 홍콩에 비하여 한단계 위의 수준이다. 영상구성이 깔끔하며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이다. 싱가포르의 '한지붕 세가족'류의 가족 코미디는 한국 드라마에 비하여 엄청난 수준 차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드라마는 진행이 다소 처지는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주제가 건전하고 도회적이어서 싱가포르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들이다.

한국 영화의 수준은 일부 영화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다. 한국 영화는 199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투자와 해외유학파들의 귀국, 소재의 다양화 등이 한국 영화 발전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도 영화의 특수효과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싱가포르에서 개봉한 <쉬리>와 <JSA>는 소재는 한국적 특수상황이지만, 주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를 보는 재미도 있고, 완성도도 비교적 높다. <비천무>는 국내에서는 흥행에 실패하고 혹평을 받았지만, 싱가포르는 가장 많은 극장인 16개 상영관에서 개봉되었다. <비천무>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무협물로서 홍콩의 무협영화에 익숙한 싱가포르인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의 연기가 미숙한 면은 있지만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제작한 영화답게 볼거리가 많다. 홍콩의 액션물이 비슷비슷한 스토리와 스타일을 20년 가까이 제작하여 홍콩의 액션물에 식상한 싱가포르인들은 신선미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호평을 받은 <시월애>는 시공을 초월하는 우편함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러브 스토리로서 환생을 철저히 믿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스토리

13) 싱가포르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주연을 맡은 연기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의 연극영화과 재학생이거나 졸업한, 전문적으로 연기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에 익숙한 중화 문화권에서 환영받을 요소가 강한 영화이다. 1990년대에 히트한 홍콩영화 <진용>도 역시 환생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을 그린 영화이다. 현지인들의 취향에 부합되는 것이다.

3. 매체의 다양화, 다원화

싱가포르의 한류는 <쉬리>, <시월애>, <비천무> 등의 영화로 시작되었지만, 그 기폭제가 된 것은 TV드라마이다. 한국의 TV드라마가 싱가포르에서 다수 작품 방송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드라마가 질적으로 우수한 데서 결과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케이블 TV와 위성 TV 등 대중매체가 증가한 데에 크게 힘입은 결과이다. 매체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방송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국내에 케이블 TV방송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만으로는 편성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중국이나 대만, 홍콩에서 제작된 시리즈물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도 동일한 이치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그 대표적인 채널이 채널 U이다.

채널 U는 2001년 5월 6일 개국한 이래 한국의 드라마를 꾸준히 방송하였다. 채널 U는 <초대>, <불꽃>, <토마토>, <미스터 Q>, <가을동화> 등을 방송했고, 시티 TV도 <해바라기>와 <아름다운 날들>을 방송하였다. 만약 싱가포르에 공중파인 채널 5와 채널 8만 존재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신생 지상파 채널이 방송시간들을 채우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는 싱가포르에서 지상파 전파를 탈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 작품이 성공하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상파 방송은 시청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다. 공중파인 채널 5나 채널 8에서 방송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생긴다. 공중파 채널은 싱가포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상파 방송은 가입한 사람들만 그 대상 시청층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채널 U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를 만드는 것을 목

적을 가지고 있어서 채널 U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은 다른 중화권에도 공급하기가 용이하고, 역으로 다른 중화권에서 방송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공급받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화, VCD, 비디오 시장의 확대도 한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일본류'의 틈새시장

일본의 대중문화는 중화 문화권에 진출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투자를 해왔다. 일본은 먼저 중화 문화권의 핵심적인 생산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 일본의 대중문화를 진출시켰다. 또한 대만에 일본의 대중음악이 일부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매니아층을 형성하였고, 일본풍의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대학가에서 인기를 얻었다. 싱가포르에 '일본류'(哈日)가 시작된 것은 2, 3년 전부터였다. 일본은 이를 위해 TV 방송의 시간대를 일정 시간 사서 그 시간동안 일본어로 방송을 진행하였다. 방송 내용은 뉴스, 일본 드라마, 일본 가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방송을 통하여 싱가포르인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드라마나 대중음악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케이블 TV와 위성 TV의 위력도 일본의 대중문화가 싱가포르 사회에 침투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한류의 초창기에는 싱가포르인들은 한국의 TV드라마에 대해 진행이 너무 느리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너무 'soapy'(soap opera적이다)하고 남존여비적인 경향이 있는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를 계속 시청하면서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과 유사한 정서를 가진 한국 드라마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는 기본적인 구조에 충실하면서 순애보적인 성향이 짙고, 가치관과 도덕수준이 보수적이어서 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드라마는 화면 구성이 유려하고 세련된 장점이 있고, 싱가포르인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스타들이 출연한다는 점에

서 흡인력이 있다. 반면 복잡하고 때로는 난잡하기까지 한 애정행태가 싱가포르인들의 정서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일본문화의 저변에 흐르는 '잔혹성'의 미학이 싱가포르인들에게 장기간 수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같은 무협물이라고 해도 홍콩의 무협물은 중국인들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이 드러난다. 복수와 은인, 애정이라는 기본 구조위에서 아주 심각한 스토리라고 해도 코믹한 요소가 드라마나 영화의 군데군데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사무라이물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코미디가 아니라면 심각한 스토리에 코믹한 요소를 가미하지 않는다. 또한 잔혹성의 미학을 기본틀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전개는 거의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병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류는 한류에 비하여 영화, TV드라마, 대중음악, 만화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폭넓은 매니아들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에는 자신들과 비슷한 유가적 전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세련된 영상과 음악을 만드는 일본의 대중문화에 싱가포르인들이 차츰 일본류에 식상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선감을 주었던 카메라의 깊은 구도와 드라마나 영화의 복잡한 구성에도 싫증이 나게 되었다. 싱가포르인들이 일본류에 식상감을 느끼게 되자 한류가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온 셈이다. 싱가포르의 쇼 비즈니스 종사자들은 영국과 미국, 대만과 홍콩의 대중문화가 장악하고 있던 싱가포르의 대중문화시장에 일본류를 도입하여 새로운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다 그 기세가 꺾이게 되자 이번에는 중화 문화권에서 맹렬하게 불고 있는 '한풍'(韓風)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싱가포르 대중문화계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다.

5. 중화 문화권에서의 확산효과 (diffusion effect)

'중화 경제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어 왔다. 1977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홍콩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 화인들의 투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를 잇는

환태평양 지대를 가리켜 중화 경제권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중화 경제권이란 중국인의 후예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경을 초월하여 일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중국인의 후예들은 각자가 속한 국가의 국민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중화 문화권'이란 용어는 중국인의 후예, 혹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역사적인 영향을 장기간 받은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한류가 존재하는 지역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는 중화 문화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 한류가 존재하는 곳은 중화 문화권인 베트남과 싱가포르뿐이다.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동남아 지역에는 한류라고 지칭할 만한 현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 문화권에서도 특히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하나의 언어가 통용될 수 있는 동일 언어권에 속한다. 중국어, 즉 북경 표준어로서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싱가포르의 뒤늦은 한류 상륙은 이 중국어 언어권에 속하는 중화 문화권에서 이미 강화되어 가고 있는 한류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다. 우선 싱가포르인들은 싱가포르에 한류가 상륙하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 중국과 대만에서 한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을 받은 일부 청소년층들에서의 변화도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이들은 <가을동화>가 싱가포르에서 방송되기 이전부터 언론 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가을동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송승헌, 원빈, 송혜교의 최근 동정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언론은 발 빠른 보도를 하였다.

중국어권의 중화 문화권에서의 한류 경향은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서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싱가포르인의 취향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면 흥행이라는 측면에서의 위험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의 보편화는 싱가포르인들이 중국어권 사이트의 워핑을 통하여 다른 중국어권 지역의 한류의 열기를 느끼고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싱가

포르에서 아직 방송되지 않은 한국의 드라마를 중국어 자막과 함께 시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다음으로 싱가포르에서 한류라고 지칭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류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싱가포르의 한류는 중국의 경우처럼 대체문화로서 유입된 것도 아니고, 일부 부유한 청소년층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싱가포르는 한류가 존재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서구화된 국가이며, 아울러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싱가포르의 대중문화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홍콩과 대만의 영향 하에 놓여져 있었고, 최근 2, 3년간은 일본의 대중문화도 상당 수준 유입되어 일본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주류는 서구와 중화 문화권의 대중문화이다.

싱가포르에서의 한류는 이제 시작단계로 보여진다. 일단 중국, 대만 등의 다른 중화 문화권에서 한류가 고조되어가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싱가포르에서도 한류가 지금보다는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류처럼 비교적 장기적인 현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싱가포르의 특성에 힘입어 주변문화로서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한류가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한류는 유사 이래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중국의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고대 이래로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전통문화의 본류는 중국문화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¹⁴⁾

근대화 이후에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구의 경제적

14) 조선조(朝鮮朝)에서는 한족(漢族)이 아닌 만주족이 중원을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양반계층은 조선이야말로 진짜 중화(小中華)라는 긍지를 갖는 경향도 있었다.

우위와 한반도 양분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민족적 자괴감과 열등감이 형성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유입된 서구의 문화는 대중을 압도하였다. 1950년대 한국전쟁후의 절대적인 빈곤 상황에서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한 대상으로 인식된 서구에서 유입된 문화의 흥수는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산업화에 서구의 대중음악을 비롯하여, 할리우드 영화, 패스트 푸드 등의 음식, 의상 그리고 사상까지 모두 마치 절대선이며 우리의 지향할 모델인양 증장년층으로까지 침투하였다.

한국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고, 한국적 문화도 일본에 소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36년간의 일본 지배와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자긍심은 상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0년대 후반의 중화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한류 현상은 한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둘째, 한류는 문화의 파급에서 그치지 않고 상품으로 연결되어 국제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경제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국제 금융위기 이래 침체해 있는 한국의 경제계는 한류를 타고 16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중국시장을 비롯, 대만과 동남아 일부지역에서 문화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또한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류현상은 국제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상품이다.

그러나, 한류 현상에 대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한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류 현상이 보이는 지역과의 쌍방향 문화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거의 10년 동안 홍콩류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정작 한류 현상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도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영화, TV 드라마, 비디오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는 편이지만,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르는 특히 세련된 서구의 대중문화와 화인들에게 친숙한 중화 문화권의 대중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한류가 일과성이 아닌 비교적 장기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려면 질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싱가포르인들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이해하고 싱가포르와 쌍방향적인 대중문화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화 문화권 진출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싱가포르인들이 2, 3년만에 식상감을 느끼게 된 것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화가 주변문화로서 일시적으로 생존할 수는 있지만, 주류문화를 대체하는 세력이 되어 생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